01

급한 말은 먼저 해도 괜찮아

초등 3-4학년 | 국어 듣기·말하기·생활교육 | 10-12분 | 대본 1쪽 + 활동지 1쪽

등장인물

1. 선생님 2. 민우 3. 수아 4. 해설

역할극으로 해보기 | 중요한 설명과 급한 필요

[수업 시작. 선생님이 칠판에 핵심 문장을 쓰고 있다. 민우는 배를 살짝 누르며 손을 들까 망설인다.]

4. 해설	교실의 시선은 칠판에 모였습니다. 민우의 시선만 문과 선생님 사이를 오갔습니다.
1. 선생님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 민우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1. 선생님	선생님은 핵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너는 화장실로 가는구나.
3. 수아	두 분 다 지금 꼭 필요한 게 있나 봐요.
2. 민우	조금 전부터 급했는데 중요한 설명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1. 선생님	기다린 이유가 있었구나. 급한 일은 먼저 짧게 말해도 괜찮아.
2. 민우	그럼 “선생님, 급해서 먼저 다녀와도 될까요?”라고 말할게요.
1. 선생님	좋아. 다녀오면 어디부터 이어 할지 선생님이 알려 줄게.
4. 해설	민우는 안심한 얼굴로 교실을 나갔고, 선생님은 칠판에 작은 별표를 해 두었습니다.

잠깐 멈춤

민우는 왜 더 일찍 말하지 못했을까요? 선생님의 설명과 민우의 급한 필요를 함께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급한 필요를 짧고 분명하게 전하기

학습 목표 필요한 도움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말한다.

1. 장면에서 확인한 사실을 고르세요.

- ☐ 민우는 중요한 설명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기다렸습니다.
- ☐ 선생님은 민우의 급한 필요를 듣고 먼저 다녀오게 했습니다.
- ☐ 민우는 수업이 싫어서 일부러 교실을 나갔습니다.

2. 처음에 한 짐작과 새로 알게 된 점

처음에는 _____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_____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장면 속 단서: _____

3. 공격하거나 숨기지 않고 다시 말해 보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_____해서 _____해도 될까요?”

_____

_____

4. 짝과 역할을 바꾸어 한 번 더 읽기

첫 번째 읽기와 비교해 달라진 말·표정·마음을 한 가지 적으세요.

_____

_____

교사용 관찰: 급한 필요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짧고 구체적인 요청과 응답을 말하는가.